



♡ 유임정 10기 - 합.격.수.기. ♡

수강생명	전○○ 수강생		수강방식	직강
응시지역	경기		병행 여부	23년: 1~2월 일병행 24년: 1~8월 일병행 25년: 1~6월 카페 알바 병행
공부경력	삼수(실공부 2년)		등수	경기 2등
점수	1차	교육과정: 65    논술: 18	2차	수업실연: 60    면접: 38.13

좌우명	隨處作主 立處皆眞 “머무르는 곳마다 주인이 되면, 서 있는 그곳이 모두 진리이다”
-----	--

**1. 시작하기에 앞서**

**1) 자기소개 및 공부 상황**

안녕하세요! 3년의 긴 터널을 지나, 2026학년도 경기 지역 차석으로 합격하게 된 삼수생입니다. 매년 공부할 때마다 합격 수기를 다 찾아 읽어보며 '나도 꼭 합격해서 합격수기 쓰고 싶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말 이렇게 합격해서 합격수기를 쓸 수 있게 되어 정말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공부를 하다보면 계획처럼 잘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각자의 개인적인 환경이나 상황들로 인해 공부를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저처럼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의 합격수기가 선생님들의 공부 방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모두 합격하시길 응원합니다!

- \* 초수: 1~2월 일병행 후 올인했으나, '허수' 공부로 1차에서 8점 차 낙방
- \* 재수: 사립유치원 업무 과다로 공부하지 못한 채 시험 응시, 1차에서 9.66점 차 낙방
- \* 삼수: 1~6월 파트타임 알바 병행, 이후 올인. 최종 1차 컷 +10점 고득점 및 차석 합격

**2) 성격 및 성향**

저는 enfj로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을 때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민한 기질이 있어 소음, 냄새, 시야에 매우 민감하고, 완벽주의 성향이 강한 편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필기하다 틀렸을 때 화이트를 쓰는 것조차 싫어해 글씨를 틀리면 다시 프린트할 정도로 스스로를 괴롭혔습니다. 또한 주변에 조금이라도 공부를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그것에 온 신경을 쏟아서 하루를 망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박이 공부의 걸림돌임을 깨닫고, 삼수 때는 '나의 예민함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법'을 먼저 배웠습니다. 또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 정서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다보니 감정 기복이 공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애도 그만두고 친구들과도 연락을 끊으며 오로지 시험에만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대신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들과 서로 힘이 되어주고 교수님의 응원으로 힘든 수험생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 3) 공부 장소

#### ①집

: 제가 가장 편하게 느끼고 주로 공부했던 장소는 집입니다. 저는 공부할 때 다른 사람 숨소리나 발소리, 컵물 흘쩍이는 소리, 책 넘기는 소리 등 정말 작은 소리에도 스트레스를 받았었고, 저 또한 상대방에게 그런 소리들로 피해를 줄까 걱정이 되어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편했습니다. 또한 집에서 공부하게 되면 비용도 절감될 뿐 아니라 시간도 매우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저는 남이 시켜서 하는 스타일보다는 제가 스스로 동기를 가지고 주도적으로 공부할 때 가장 효율이 컸던 사람이라 혼자 집에서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또한 시험 직전에는 극한의 효율을 높이고 외부의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 집에서 공부하였습니다.

#### ②도서관

: 제가 두 번째로 자주 이용한 공간은 도서관입니다. 한 공간에서 공부를 계속 하다보면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편했지만, 집에서 공부가 잘 되지 않을 때에는 집 근처 도서관으로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보문헌실은 개방되어 있는 공간이기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동기부여 삼아 집중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주변 소음은 이어플러그를 끼고 그 위에 헤드셋을 써서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너무 예민해서 공부가 되지 않을 때에는 더 조용한 열람실로 이동해서 공부했습니다. 집 밖의 장소라서 공부 시 모든 책을 다 들고 다녀야 한다는 것은 단점이었지만, 도서관 또한 집과 가깝고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매우 좋았던 공부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 ③카페

: 저는 공부 장소로는 카페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초수와 재수 때에는 기분전환 겸 가끔 카페에서 공부를 할 때가 있었는데, 카페 노래소리와 주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들로 인해 전

혀 집중이 되지 않았고, 공부를 열심히 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도 결국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공부할 때 카페를 가지 않았습니다.

#### ④스터디 카페

: 초수와 재수 때 스터디 카페 정기권을 끊어 다녔었는데, 개별 칸막이가 쳐져 있는 공간에서 매일 공부하니 주변 시야에 방해되는 사람이 안 보인다는 것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매번 같은 공간에서 반복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아서 올해 공부할 때에는 스터디 카페는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한 두 번 가고 그 외에는 자주 가지 않았습니다.

#### ⑤그 외 공부 장소

: 저는 정말 공부 장소가 다양했는데요. 바로 집 앞에 산책로가 잘 마련되어 있어 산책하면서 책을 보기도 하고, 병원에서 대기하거나 치료 받을 때, 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할 때, 운동할 때, 화장실에서 씻을 때 등등 장소 제약 없이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수시로 떠올리고 인출하였습니다. 공부를 정말 하루 종일 계속 하다보면 꿈에서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날 외운 것들이 꿈에 나올 때에는 꿈에서 깨면 너무 기분이 좋고 뿌듯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니 선생님들께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가장 최적의 공부 장소를 한 곳 정해두시되, 너무 익숙해져서 느슨해지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장소를 바꿔가며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4) 멘탈관리

이건 제가 합격에 있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 (1) 자신감만큼은 1등!

‘성공의 비밀은 자신감이고, 자신감의 비밀은 확실한 준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용 공부를 하다보면 ‘내가 붙을 수 있을까?’, ‘난 이번에는 안 될 것 같아.’ 등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나날들이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초수, 재수 때에는 그랬고, 오히려 ‘지금 나는 준비가 아직 덜 되었으니 떨어지는게 차라리 낫다.’라고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들!! 이런 생각들은 전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아요. 당장 갖다 버리세요! 합격을 위해서는 먼저 자기 스스로가 자신감을 가지고 스스로를 믿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신감을 억지로라도 가지려고 하다보면 정말 어느새 ‘난 할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합격으로 가는 행동들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 (2) 긍정적으로 자기 세뇌 시키기

저는 평상시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제 자신에게는 엄격했었는데요. 삼수 때는 스스로에게 긍정

의 확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는 이미 경기 수석이다. 난 미래에서 왔고, 수석합격을 하는 것을 보고 온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그 영광의 길을 걷고 있을 뿐이다.’라고 매일 되뇌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친해진 친구들에게도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해주며 친구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서로 응원해주었습니다.

### (3) 체력관리

공부의 완성은 엉덩이가 아니라 체력에서 나옵니다. 멘탈 관리는 결국 체력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처음에는 자신만만했지만, 시험이 다가올수록 체력이 고갈되자 몸의 고통이 고스란히 마음의 불안으로 다가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몸이 아프니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 결과가 다시 불안을 키우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①휴식시간 가지기: 저는 왕복 3시간의 학원 이동 시간과 알바 시간 때문에 개인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는 강박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3월 이후로는 1차 시험날까지 일주일 중 단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모의고사 시즌에 접어들자 체력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힘들 때는 하루 정도 자신에게 온전한 휴식을 허락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②잠은 결코 사치가 아닙니다: 지난 1년을 돌이켜보면 매번 수면부족에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에 맞춰야 한다는 생각에 아침 6시 기상 스테디를 강행했지만, 밤에 공부가 잘되는 성향 탓에 늘 새벽 2시가 넘어서야 잠들었습니다. 1차 고득점 이후에도 2차 준비를 위해 하루 2~3시간만 자며 공부했고, 시험 직전에는 허리가 너무 아픈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없어 병원도 가지 못하고 약을 먹으며 버텼습니다.

여러분, 잠을 줄이는 공부는 결코 정답이 아닙니다. 적당한 숙면을 취해야 짧은 시간을 공부하더라도 질 높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공부 시간이 아예 확보되지 않는 극한의 상황이 아니라면, 부디 자신을 너무 혹사하지 말고 잠은 꼭 챙겨 주무세요. 건강을 잃으면, 정작 합격의 기쁨을 누릴 기력조차 남지 않게 됩니다.

### ④내가 좋아하는 것에서 에너지 얻기

저는 먹는 것을 엄청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불안하거나 힘들 때는 좋아하는 피자나 과일을 사먹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져서 다시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냅다 노래를 틀어두고 춤을 추고, 제가 좋아하는 노래들을 들으며 다시 일어설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제가 올해 정말 많이 들었던 노래 몇 곡을 추천해드립니다:)

#### ♪수험 생활을 버티게 해준 플레이리스트♪

나는 나비 (YB) / 질풍가도 (유정석) / Butterfly (전영호)  
 타임머신 (다비치) / 돌덩이 (하현우) / 바위처럼 (꽃다지)

## 1. 실패 원인 분석 / 삼수 합격 비결 분석

### 1) 초수(올인)

초수 시절의 저는 의욕만 앞섰을 뿐, 임용고시라는 거대한 시험을 대하는 전략이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실패했던 원인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 (1) 기초 공사의 부실

1~2월에 방과후 교사 근무와 한국사 자격증 취득을 병행하느라, 가장 중요한 '개론반' 복습 시기를 놓쳤습니다. 특히 한국사 공부에 치여 뒷부분(놀이, 교사론, 부모교육론)을 소홀히 다룬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기초가 흔들리니 3월 각론반의 방대한 양에 압도당했고, 시험 직전 모의고사 때까지도 개론에 대한 자신감 부족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 (2) 환경 설정의 실패와 정서적 불안

저는 사람을 만나며 에너지를 얻는 외향적인 성격입니다. 하지만 3월부터 무작정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공부를 하게 된 것은 저를 정서적으로 고립시켰고, 스트레스와 우울감으로 이어졌습니다.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당시 남자친구에게 많이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서 오는 감정 기복이 공부 루틴을 망가뜨렸고, 감정 소모로 인해 하루를 통째로 날리는 날이 많아지며 공부에 큰 방해가 되었습니다.

#### (3) '공부하는 척'과 '시간 채우기'에 속았던 학습 방식

임용고시의 방대한 양 앞에서 저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았습니다.

① **질보다 양에 집착한 공부시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기 위해 단순히 스톱워치 숫자를 올리는 데만 급급했습니다. 정작 머리에 남는 것이 없어도 책상 앞에 오래 앉아만 있으면 합격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② **수동적인 학습**: 교수님께서 강조하신 '목차 백지 쓰기'나 '구조화'는 외면한 채, 요약본에 예쁘게 밑줄 치고 필기하는 등 눈에 보이는 예쁜 쓰레기를 만드는 데 시간을 다 썼습니다. 이는 공부하는 기분만 낼 뿐 실질적인 암기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③ **아웃풋의 부재**: 6월까지도 제대로 된 암기가 되어 있지 않았고, 문제풀이나 모의고사의 오답 노트조차 만들지 않고 방치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초수 시절의 저는 수많은 핑계 뒤에 숨어 '공부다운 공부'를 하지 않았던 허수 수험생과 다름없었습니다.

### 2) 재수(일병행)

초수 때의 '고립된 공부'가 제 성향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재수 때는 에너지를 얻으며 공부하고자 사립유치원 방과후 과정 담임교사로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제 수험 생활 중 가장 혹독한 시련이 되었습니다.

**(1) 무너진 일과 삶의 균형**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유연근무제가 가능한 곳을 골라 지원했지만, 현실은 서류상의 조건과 전혀 달랐습니다. 과중한 업무량은 기본이었고, 유치원 업무로 인해 매일 새벽 4시까지 무임금 야근을 하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아침 8시에 출근해 새벽 4시에 퇴근하는 일상이 반복되며 '공부'는 커녕 '생존'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2) 몸과 마음의 경고**

극심한 스트레스는 몸으로 나타났습니다. 두드러기, 성대결절 등 온갖 질병을 얻었습니다. 주말 조차 수업 자료를 만드느라 펜 대신 가위를 잡아야 했던 상황에서, 일병행을 선택한 제 자신을 수없이 자책하며 울면서 일했던 기억이 납니다.

**(3) 포기 대신 선택한 퇴사, 그러나 부족했던 절대적 시간**

이런 지옥 같은 상황에서도 임용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결국 8월 말,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어 과감히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9월부터 다시 올인 수험생으로 돌아가 남은 2개월간 사력을 다했지만, 이미 상반기에 잃어버린 이론의 공백과 절대적인 공부 시간의 부족을 메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재수 때도 컷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점수로 떨어지며, 환경 설정과 공부 시간 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3) 합격 비결 분석(삼수)**

**(1) 쉬을 통한 재충전 시간 가지기**

삼수를 시작하기 전, 저는 1월에 일주일간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오며 온전한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전에는 여행지에서도 공부 걱정 때문에 책을 챙겨갔지만, 이번에는 모든 걱정을 내려놓고 신나게 놀았습니다. 이 쉼표가 1년이라는 장기 수험 생활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와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장수생이거나 지친 선생님들이라면, 일주일 정도는 자신을 위한 완전한 휴식을 선물하시길 추천합니다.

**(2) 의존에서 벗어난 '홀로서기'**

수험 생활이 길어지며 저도 모르게 남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삼수 때는 내 삶의 주인의식을 갖는 데 집중했습니다.

①관계의 정리: 3월, 공부에 방해가 되었던 장기 연애를 정리하고 오로지 나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②주도적인 스터디 운영: 남이 만든 스터디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한 스터디

를 직접 만들고 마음 맞는 팀원을 모집했습니다.

③스스로 해내기: 공부 계획 수립은 물론, 시험장 숙소 이동까지 가족의 도움 없이 혼자 해내며 "내 시험은 내가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을 다졌습니다.

**(3) 공부의 '양'보다 '질'**

무작정 앉아 있는 시간보다 집중력의 밀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①시기별 공부 시간: 1~3월(알바 적응기) 평균 3시간, 4~6월 평균 6시간, 7~10월 평균 8시간 30분 정도로 절대적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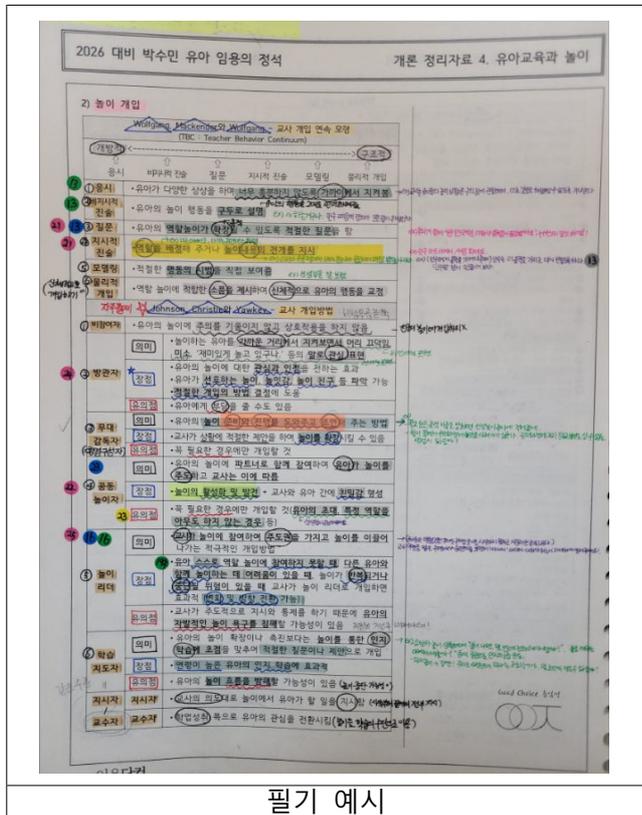
②자투리 시간 활용: 카페 알바 시간에는 항상 법규나 건강안전, 개론 요약본을 가져가 틈틈이 보았고, 집에서 학원까지 왕복 3시간동안 지하철을 이동하는 시간은 늘 요약본을 보며 암기 및 인출시간으로 활용하였습니다.

③페이스 유지: 3월부터 시험 날까지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몸이 너무 힘든 날은 2~3시간이라도 책을 보며 공부의 감을 놓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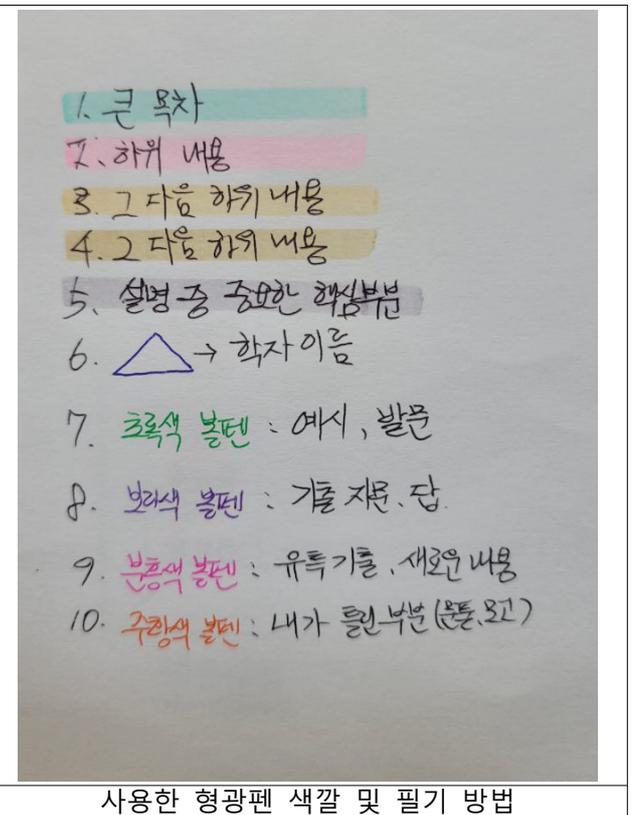
**(4) 시각적 구조화: 색깔의 전략적 활용**

저는 목차 계층에 따라 형광펜 색깔을 고정하여 요약본을 정리했습니다.

①구조화의 시각화: 정해진 규칙대로 색을 칠하면 뇌가 자연스럽게 정보의 위계를 인식합니다. 매번 인출할 때와 모고 때, 특정 색깔이 위치한 곳의 내용이 이미지처럼 인출되는 효과를 보았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 때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단 사진 참고)



필기 예시



사용한 형광펜 색깔 및 필기 방법

**(5) 당일 복습과 무한 반복 인출**

제가 1차에서 고득점을 한 이유는 상반기부터 체계적으로 반복 인출을 해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①인출 목록표 활용: 별도의 목차를 만드는 대신 교수님이 제공해주신 인출 목록표를 요약본 맨 앞에 제본하여 큰 틀을 잡고 수시로 인출했습니다.

②암기 미루지 않기: 그주에 들은 강의 내용은 무조건 다음 강의가 시작되기 전까지 완벽히 이해하고 암기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양이 방대해지기 때문에 그 주 분량은 그 다음 수업시간 전까지 반드시 끝내려고 했습니다.

③다양한 방법으로 인출하기: 저는 인출의 중요성은 체감했지만 백지쓰기를 고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종이에 일일이 적는 방식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대신 목차를 보고 말로 인출하거나 타이핑을 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고수하면 금방 지루해지는 편이라, 한글 파일에 목차대로 타이핑해보기, 종이에 낙서하듯 키워드만 적으며 말하기, 혹은 'X-Mind' 앱으로 마인드맵을 그려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했습니다.

④교차학습: 학습 루틴은 그주에 배운 범위를 4개의 소영역으로 나누어 평일에 암기하고, 남은 이틀은 기출 풀이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전날 외운 영역을 다음 날 복습 과정에 살짝 끼워 넣는 방식으로 '교차 학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했는데, 이 방법이 장기 기억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3. 1차 시기별 공부 방법**

**1) 1~2월 (해이실, 고시문, 개론)**

**(1) 고시문, 해이실**

고시문과 해이실은 시간적 여유가 있는 1~2월부터 미리 시작하시길 강력히 추천합니다. 저는 초·재수 시절 6월까지 암기를 미루다 고생했던 경험이 있어, 삼수 때는 1월부터 매일 인출을 반복해 6월 문풀 전까지 완벽하게 숙지했습니다. 하반기는 생각보다 시간이 매우 빠르게 지나가므로 초반에 기틀을 닦아야 합니다.

①고시문 인출: 고시문은 매일 반복해야 하기에 손으로 쓰기보다 타이핑으로 빠르게 인출했습니다. 특히 엑셀 프로그램을 활용해 정답 유무를 즉시 확인하며 하루 딱 10분만 투자했습니다.

②해이실 암기: 모든 암기는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해이실 역시 교수님의 요약본으로 구조를 먼저 이해한 후 암기했습니다. 기상 스튜디오 10분간 해설서와 놀이 실행 자료를 강독하는 방식을 활용했는데, 잠도 깨고 매일의 루틴을 잡는 데 효과적이었습니다.

③주의점: 고시문은 기계적으로 반복하다 보면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며칠간 중단했다가 다시 인출해 보며 장기 기억을 점검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워낙 휘발성이 강하므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 개론**

올해는 개론부터 탄탄하게 잡겠다는 목표로 수업 태도부터 바꿨습니다. 필기에만 치중하기보다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며 실시간으로 머릿속 인출을 병행했습니다.

① **쉬는 시간 활용**: 수업 직후 쉬는 시간 1~2분을 활용해 방금 배운 내용을 요약 정리했습니다. 수업이 다 끝난 후 복습을 뒤늦게 하면 잘 기억에 나지 않을 수 있지만, 수업 직후 1~2분이라는 짧은 시간에 잠깐 내용을 회상하기만 해도 기억이 오래 갑니다.

② **직강 후 당일 인출**: 수업이 끝나면 늦게까지 학원에 남아 그날 배운 파트를 즉시 암기하고 인출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포스트잇에 적어두었다가 교수님께 질문하여 의문점을 모두 해소한 뒤 귀가했습니다.

③ **일주일 루틴**: 다음 수업 전까지 일주일을 4~5개정도 소영역으로 나누어 전체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진도가 나갈수록 누적 복습 양이 늘어나지만,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전 범위를 끼워 넣어 인출했습니다.

④ **재수 이상이신 선생님들을 위한 조언**: 개론 시기에 각론 병행 여부를 고민하시겠지만, 저는 1~2월에 오로지 개론 하나만 확실히 다지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기초가 탄탄해야 이후 각론과 문풀 시기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면 후반부에 체력이 고갈될 수 있으니 페이스 조절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3~6월(논술, 각론, 건강안전, 법규)**

**(1) 논술**

3월 논술 기초반부터는 꾸준함이 생명입니다. 초수 시절 한 시간 안에 쓰기도 벅찼던 논술이, 교수님이 이야기해주신대로 매주 보완해 나가니 점차 시간 내 완성이 가능해졌습니다.

① **복습 루틴**: 매주 공부 계획에 논술 1시간을 고정으로 두고 공부했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때 말씀해주신 대로 논점별, 서·결론별로 나누어 매일 조금씩 다시 써보고 문장을 암기했습니다. 별도의 첨삭 스터디는 시간 낭비라 생각하여 하지 않았고, 문풀 시즌에는 친구와 미루지 않고 챙기기 위해 '인증 스터디' 정도만 가볍게 진행했습니다.

② **개요도 작성 팁**: 개요도는 최대한 깔끔하고 간결해야 합니다. 저는 모든 문장을 적지 않고 핵심 키워드만 적었으며, 교사 이름도 성만 따서 짧게 적었습니다. 문제지 사례를 인용할 때는 문제지에 미리 밑줄을 긋고 개요도에는 '사례' 혹은 '김T 사례'라고만 표시해 시간을 단축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단축하면 실전에서 돌발 상황이 생겨도 침착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③ **배점표 확인**: 점수 배점표는 반드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평소 시간이 부족한 적도, 실수한 적도 없었음에도 이번 1차 시험에서 개요도를 잘못 작성했습니다. 답안지를 옮기기 직전 배점표를 보고서야 논점 2와 3이 각각 2가지씩이었다는 걸 깨닫고, 다시 수정하고 답안을 작성하느라 시험 종료까지 1분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겨우 완성했던 아찔한 기억이 있습니다.

④ **본질은 암기 실력**: 논술 점수는 결국 개각론 암기의 깊이에 비례합니다. 암기가 부족했던 초

수 때는 한 페이지 채우기도 힘들었지만, 개념이 확실히 잡힌 올해는 매번 두 페이지를 꼭 채울 정도로 풍부한 글쓰기가 가능해졌습니다. 1~2월에 개론을 탄탄히 다져두면 논술 시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2) 교육과정**

3월부터 각론을 들어가고 나서는 양이 정말 많아지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①초수 선생님께 드리는 팁: 초수라면 매주 수업 전날, 그 주의 수업 범위를 가볍게 미리 읽어보며 전체적인 체계를 파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수업 중에 교수님께서 목차를 짚어주시며 중요도를 설명해 주시지만, 공부하는 결국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강의를 수동적으로 '듣는 것'에서 끝내지 말고, 주체성을 가지고 내용을 소화하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완벽히 외우려 하기보다 '이 영역에 이런 흐름이 있구나'를 먼저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요약본 적극 활용: 저는 개각론 요약본을 수업 당일 아침에 받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정리를 끝냈습니다. 강의 시작 전에는 매번 일찍 도착해 요약본을 훑으며 작년 대비 변경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요약본을 시각적으로 구조화 하였는데, 제가 정한 형광펜 규칙에 따라 목차를 미리 칠해두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바로 필기하고, 동시에 머릿속에 집어넣으며 실시간 암기가 가능해집니다. 별도의 요약본 정리 시간을 따로 내지 않아도 되어 효율성이 극대화됩니다.

③암기와 인출 무한 반복: 각론 역시 개론과 마찬가지로 일주일동안 범위를 소영역으로 나누어 매일 암기했습니다. 진도가 나갈수록 누적되는 양이 많아지지만, 조금씩이라도 매일 이전 범위를 끼워 넣어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매번 누적되는 양을 모두 다 복습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부족한 영역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고, 그 영역을 중점적으로 반복하되 중간중간 다른 영역도 인출할 수 있도록 끼워 넣었습니다. 반복을 거듭하면 어느 순간 책을 보지 않고도 요약본 순서대로 머릿속에서 체계가 그려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④추천 스터디**

<스터디 ①: 문제내기 스터디>

학원에서 친하게 지냈던 친구와 함께 매주 파트를 정하여 문제를 내오고 수업이 끝난 후 풀어보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문제는 서술형, 빈칸, 단답형 등 다양하게 출제해서 수업이 끝난 후 밴드에 올렸고, 푸는 것은 종이에 각자 풀고난 후 서로 바꿔서 채점해주며 틀린 부분과 맞은 부분을 함께 이야기 나누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즉시 교수님께 여쭙보았습니다. 그리고 밴드에 댓글로 출제자와 문제를 푼 사람의 답을 모두 기록해두어 집에서도 복습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사진 참고)

< 2026 문제내기 스테디

2025년 3월 29일 오후 5:55 - 1 위클리

♥스터디 진행방법♥

- 매주 주관식 3문제, 서술형 5문제 출제
- 수업 끝나자마자 문제 업로드, 각자 서로의 문제를 푼다
- 다 풀고 각자 미리 준비해온 모범답안을 올린다
- 교환해서 채점하기
- 채점한 답안지 찍어서 댓글로 업로드

♡스터디 진행계획♡

4/5 놀이  
4/12 발달  
4/19 성격 + 교사론  
4/26 사상 + 부모교육론 #

표정 1 댓글 2

성격3(단답1 서술2) / 교사5(단답2 서술3)  
사상 부모 5/5 (단답2 서술3)  
2025년 4월 12일

4/26 - 사진, 워딩, 목차까지 2, 부모, 4/4  
5/4 - 연이 날로, 5/4  
5/4 - 연이 날로, 5/4

계획표

< 2026 문제내기 스테디

2025년 5월 10일 오후 5:46 - 1 위클리

#의사소통

- 다음 김 교사가 계획하려고 하는 활동에서 나타난 문자언어지도 접근법의 1) 장점과 2) 단점을 쓰시오.  
김 교사: 지난번에 우리 반 아이들과 친구 이름으로 삼행시 짓기 활동이랑 반 친구 이름 글자가 들어간 단어 찾기 놀이를 했는데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친구 이름 중 어려운 글자도 읽고 쓰려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에는 친숙한 글자로 의미 있게 접근하면서 필요한 경우 낱자를 이용해 놀이하는 방법을 계획해보아주세요.
-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이야기를 끌고 가는 주제인 (ㄱ)을 고려해야 한다. 또 그림책에서 문장에 나타난 작가의 독특한 개성인 (ㄴ)으로 긴장과 흥미를 고조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어야 한다. 1) 기호에 들어갈 말을 쓰고, 2) 좋은 그림책 선정을 위한 (ㄱ)의 조건과 3) (ㄴ)을/를 이용하여 긴장과 흥미를 고조시킬 수 있는 효과를 주는 방법을 쓰시오.
- (ㄱ)동화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오는 문학인 (ㄴ)의 한 형태로, 동심의 수준에 맞게 개작, 재화한 유아 문학 작품이고, (ㄷ)동화는 현대에 작가에 의해 창작된 것으로 시간상을 초월하며 유아의 상상력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ㄱ)동화와 유사한 점이 많지만, (ㄱ)동화는 초현실세계와 현실세계가 (ㄷ)하며 초현실적 존재와 사건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반면, (ㄷ)동화는 (ㄷ)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ㄱ)동화는 등장인물의 성격이 (ㄴ)인 반면, (ㄷ)동화는 (ㄴ) 성격의 주인공이 등장한다. 그리고 (ㄱ)동화는 주제(ㄹ), (ㄷ) 등 한정적인 반면, (ㄷ)동화는 주제가 다양하며, (ㄱ)동화는 (ㄷ) 결말로 끝나는데 비해, (ㄷ)동화는 (ㄱ)결말로 끝나는 차이점이 있다.
- 엽록의 1) 특징을 쓰고, 2) 사용 시 유의점을 쓰시오.

#성격

1 1) 아동 본자의 주요 원칙 중 귀인과 책임의 원칙에 근거하여 아동과

문제 예시

< 2026 문제내기 스테디

- 1.1) 균형적 언어교육 접근법은 유아가 의미있는 맥락에서 문자를 경험하기 때문에 언어학습의 동기와 흥미가 지속되면서도 글의 의미파악이 쉽고, 글자 인식 기술과 관련하여 개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개별학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자에 대한 기초 기능이 발달하며, 학습의 전이가 높다는 장점이 있다.  
2) 균형적 언어교육 접근법은 교사의 지도능력에 따라 학생마다 개인차가 클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2. 1) ㄱ: 등장인물, ㄴ: 문제  
2) 유아들의 모습이나 행동이 반영되고 유아들의 정서를 잘 나타내어 유아들이 쉽게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3) 단어나 구절, 문장, 상황 등을 점진적으로 변화를 주며 반복시킨다.
3. ㄱ: 전래, ㄴ: 전승문학, ㄷ: 환상, ㄷ: 공존, ㄷ: 분리되어 있고, 두 사건이 특정한 전환점에서 만난다, ㄷ: 평면적, 전형적, ㄷ: 입체적, 개성이 뚜렷한, ㄷ: 권선징악, ㄷ: 인과응보, ㄷ: 해피엔딩의 달린, ㄷ: 열린
- 4.1) 엽록은 소리, 장치 흔들기, 탭, 스핀 등 다양한 동작을 통해 상호작용할 수 있는 특성 및 휴대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2) 너무 흥미위주의 게임이나 오락적 요소를 많이 넣게 되면 동화 내용의 몰입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인터랙션 요소가 너무 많지 않은 것을 선택해야 하며, 중독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교사의 지도하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성격

1.1) 아동은 자신을 책임지고 있는 성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고, 자신에게 주어지는 요구사항을 인정하며 자발적 활동이나 계획에 참여하여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이다.

답안 예시

<스터디 ②: 단계 스테디>

각론으로 들어가면 외워야 할 단계들이 정말 많은데, 이것들은 한 번에 외우기 보다는 나눠서 반복 암기를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하고 직접 스테디를 만들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나오는 단계들을 쭉 정리하여 하루에 4, 5개 정도씩 적당량 배치한 후 서로 암기한 것을 인증 하여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밴드에 문제를 내고 다른 선생님들은 답변을 다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 스테디는 총 두 번 진행했는데, 첫 번째와 다르게 두 번째에서는 영역 간 교차학습을 더 활발히 하기 위해 매일 영역을 여러 개 섞어가며 진행하였습니다. (사진 참고)

(단계 스티디 계획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5/25	5/26	5/27	5/28	5/29	5/30	5/31
				A	B	C
				발달 1~6	놀이 1~6	교사 1~7
6/1	6/2	6/3	6/4	6/5	6/6	6/7
D	A	B	C	D	A	B
부모 1~7	신체 1~7	의사 1~6	사회 1~6	예술 1~6	자연 1~6	운영 1~6
6/8	6/9	6/10	6/11	6/12	6/13	6/14
C	D	A	B	C	D	A
놀이 7~13	교사 8~14	신체 8~11	의사 7~12	사회 7~12	예술 7~12	자연 7~12
		발달 7~8				
6/15	6/16	6/17	6/18	6/19	6/20	6/21
B	C	D	A	B	C	D
운영 7~12	놀이 14~19	의사 13~18	사회 13~18	예술 13~18	자연 13~18	사회 19~24
6/22	6/23	6/24	6/25			
A	B	C	D			
의사 19~20	사회 25~30	예술 19~21	사회 31~32			
자연 19~21						

5~6월 계획표

(단계스티디 계획표)

월	화	수	목	금
7/4	7/15	7/16	7/17	7/18
A	B	C	D	E
발달 1~2	놀이 1~2	교사 1~2	부모 1~2	자연탐구 1~3
신체 1~3	의사소통 1~3	사회관계 1~3	예술경험 1~3	운영 1~2
7/21	7/22	7/23	7/24	7/25
B	C	D	E	A
발달 3~4	놀이 3~4	교사 3~4	부모 3~4	자연탐구 4~6
신체 4~6	의사소통 4~6	사회관계 4~6	예술경험 4~6	운영 3~4
7/28	7/29	7/30	7/31	8/1
C	D	E	A	B
발달 5~6	놀이 5~6	교사 5~6	부모 5~6	자연탐구 7~9
신체 7~9	의사소통 7~9	사회관계 7~9	예술경험 7~9	운영 5~6
8/4	8/5	8/6	8/7	8/8
D	E	A	B	C
발달 7	놀이 7~9	교사 7~8	부모 7	자연탐구 10~12
신체 9~10			예술경험 10~11	
사회관계 10~11	의사소통 10~12	사회관계 12~14	사회관계 19~20	운영 7~8
8/11	8/12	8/13	8/14	8/15
E	A	B	C	D
놀이 10~12	교사 9~10	사회관계 19~22	자연탐구 13~14	사회관계 26~28
신체 11~12	의사소통 13~15	예술경험 12	사회관계 23~25	운영 9~10
8/18	8/19	8/20	8/21	8/22
A	B	C	D	E
놀이 13~14	교사 11~12	예술경험 13~15	자연탐구 15~17	놀이 15~16
의사소통 16~18	사회관계 29~31	사회관계 32~33	운영 11~12	의사소통 19~21
8/25	8/26	8/27		
B	C	D		
교사 13~14	예술경험 16~17	예술경험 18~19		
사회관계 34~35	자연탐구 18~19	자연탐구 20~21		
	사회관계 36	사회관계 37		

7~8월 계획표

2025년 7월 30일 오후 2:29

4명이 읽었습니다.

**#사회관계**  
(과거 기술 응용)  
1. 다음은 아동의 사회적 조망 수용 능력의 발달 수준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예문이다. 이 예문을 들려주고 "이 때 철수는 어떻게 할까? 철수 아빠는 그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아동의 반응을 설명이 제시된 발달 수준에 따라 각각의 기호에 해당하는 단계의 명칭과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쓰시오.  
<예문>  
철수는 동네에서 나무타기를 가장 잘한다. 어느 날 나무에 올라갔다가 떨어졌으나 다치지 않았다. 마침 아빠는 철수가 떨어지는 것을 보시고 화를 내시며 앞으로 나무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셨고 철수도 올라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 후 철수는 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그 친구의 새끼 고양이 나무에 걸려서 내려오지도 못하고 자칫 잘못하다간 떨어질 지경이었다. 고양이를 나무에서 데리고 내려올 수 있는 사람은 철수뿐이었으나 철수는 아빠와의 약속 때문에 주저 하며 머뭇거렸다.  
<유아의 반응>  
7. 철수는 나무에 올라가 고양이를 데리고 내려와요. 철수가 고양이를 구하면 아빠는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도 고양이를 좋아하거든요."라고 대답한다.  
나. 철수는 나무에 올라가 고양이를 데리고 내려와요. 아빠는 고양이가 다칠지도 몰라서 철수가 나무에 올라가게 된 것은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아빠는 철수가 다칠까봐 걱정이 되어 야단치실 거예요."라고 대답한다.  
c. 철수는 나무에 올라가 고양이를 데리고 내려와요. 아빠는 철수가 왜 올라갔는지 모른다던데 화내실지도 몰라요. 그 런데 고양이가 다칠지도 몰라서 철수가 구했다고 하면 잘했다고 하실 거예요."라고 대답한다.  
**#교사**  
2. 1) कै츠의 교사 발달이론의 단계를 순서대로 모두 쓰고, 2) 2단계와 3) 3단계의 훈련 내용을 쓰시오.

2

3

암기 인증

문제 예시

**(3) 건강안전**

건강안전은 분량이 많아 3월 신체운동건강 영역을 배운 시점부터 매일 30분~1시간씩 꾸준히 투자했습니다.

①스터디 적극 활용하기: 학원에서 지내며 공부를 성실히 하는 선생님들을 눈여겨보았다가 같이 스터디를 하자고 제안하여 스터디를 만들었습니다. 첨부해드린 계획표 사진처럼 분량을 나



### 3) 7~8월(문제풀이반)

#### (1) 벼락치기 절대 금지

초수와 재수 시절에는 틀리는 것이 두려워 시험 당일 아침까지 책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장의 점수를 높여줄 뿐, 실질적인 실력 점검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①이틀 전 공부 종료: 시험 주간의 3~4일 동안 해당 영역을 집중 암기하되, 시험 이틀 전부터는 해당 영역을 절대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방금 본 잔상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완전히 저장된 지식으로 푸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②이전 영역 복습: 시험 전 남은 이틀 동안은 오히려 지난주에 풀었던 영역을 복습하며 장기 기억을 촘촘하게 점검했습니다.

#### (2) 실전 임전태도

문풀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문제도 놓치지 않겠다는 최선의 태도입니다.

①엄격한 자기 채점: 내 답안을 부끄러워하거나 흐린 눈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키워드가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 없이 틀렸다고 체크했습니다. 문풀 때 틀리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부족한 점을 보완해 줄 귀한 기회입니다.

②실전 시뮬레이션: 모르는 문제라고 쉽게 포기하거나 해설 강의에 의존하지 않고, 실제 시험 처럼 끝까지 고민하며 시간 내에 모든 문제를 풀려고 노력했습니다.

#### (3) 오답 분석의 효율화

오답 노트를 따로 만드는 시간마저 아껴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①답안지 적극 활용: 정리가 잘 된 교수님의 답안지를 오답 노트로 활용했습니다. 틀린 이유를 암기 부족, 오개념, 신유형, 실수 등으로 나누어 색깔별 스티커로 분류해 답안지에 직접 표시하며 약점을 시각화했습니다.

②오답은 미루지 않고 당일에 끝내기: 모든 오답 분석은 학원 강의를 끝난 날 그 자리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날 부터는 또 다시 다른 영역의 공부를 해야 하기에 다음 날까지 오답을 가져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③자투리 시간 암기: 분석을 마친 답안지는 사진으로 찍어 귀가하는 지하철 안에서 모범답안을 암기하며 그날 공부를 끝냈습니다.

### 4) 9~10월(모의고사 반)

#### (1) 실전 시뮬레이션 돌리기

모의고사 반은 지식을 인출하는 연습을 넘어, 시험장의 공기까지 시뮬레이션하는 시기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당황하지 않기 위해 매주 앞, 뒤, 구석 등 자리를 바꿔가며 앉았고, 실제 시험 용 볼펜과 신분증을 지참해 실전 적응력을 높였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지역에서 자 사용이 금

지된다는 점을 고려해, 답안지 선을 그을 때 자 대신 신분증을 활용하는 사소한 습관까지 몸에 익혔습니다.

또한 시험 직전에는 시험 때 입을 옷을 계속 입고 공부했으며, 시험 몇 주 전부터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같은 양의 죽을 먹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쉬는 시간에 먹을 간식 또한 몇 주치의 양을 미리 사두고 쉬는 시간을 계산하여 정확한 시간에 항상 똑같은 간식을 먹었고, 화장실에 가는 횟수 또한 제한해가며 시험 환경에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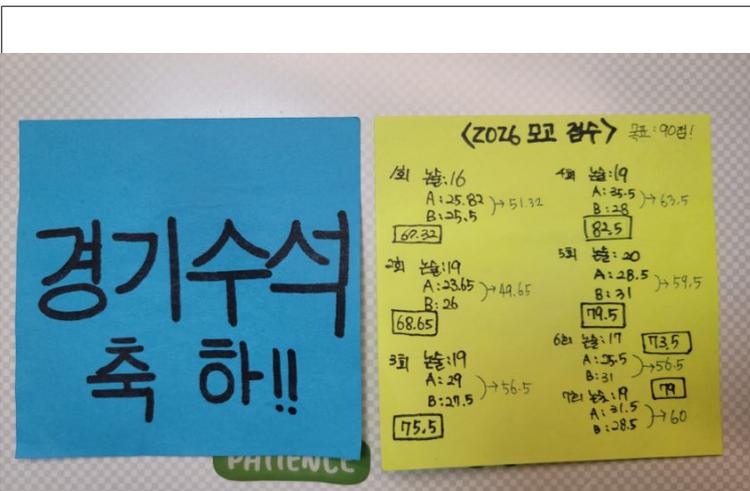
**(2) 슬럼프 극복**

초기에는 '90점'이라는 높은 목표에 매몰되어 평소 하지 않던 실수를 연발하기도 했습니다. 한 회차에서 실수가 10개나 나오자 실제 시험에서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막연한 공포심에 집에 가는 지하철 안에서 평평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생각이 들어 얼른 정신을 차리고 '챗지피티'와 '재미나이'를 통해 시험에서 실수하는 원인을 분석하였습니다.

①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어떤 유형에 취약한지' 전략적으로 파악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다음 회차에서 실수를 줄여 높은 점수를 얻었고, 실제 시험에서도 모의고사와 비슷한 고득점(83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② 긍정사고 전파하기: 이 시기에는 누구든지 많이 힘들고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저 역시 매번 긍정적으로 사고하며 누구보다 밝은 사람이었지만, 모고 시즌에는 많이 울고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억지로라도 긍정사고를 주입해야 합니다. 친구와 서로 '우리가 제일 잘한다. 우리는 상위권으로 붙을 수 있다. 무조건 고득점 합격이다.'라고 응원해주고 힘을 불어넣어주며 멘탈을 놓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또한 남과 절대 비교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의 변화에 집중하였습니다.

모고 시기에는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지만, 선생님들께서도 점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실수를 실력으로 바꾸는 과정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멘탈관리를 위해 책상에 붙여두고 매일 보았습니다



친구와 힘들 때 응원 주고 받기

**(3) 자기 객관화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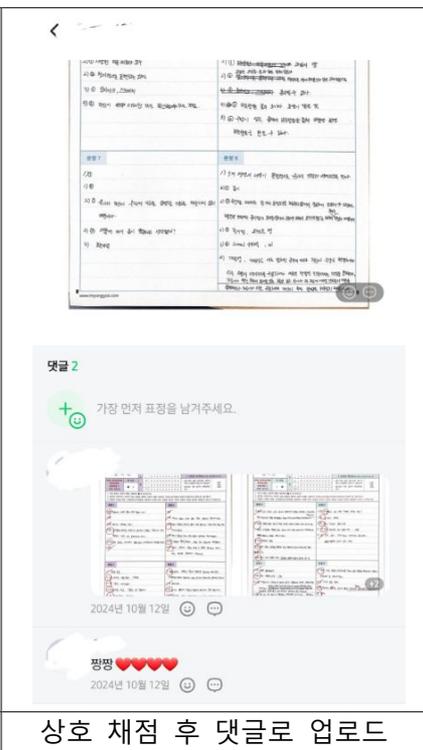
고득점의 핵심은 내 답안을 타인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3명에서 서로의 답안지를 교차 채점하는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①답안의 보편성 확보: 내가 확신한 문장도 남의 눈에는 오답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며 누가 보더라도 정답일 수밖에 없는 명확한 답안을 작성하는 법을 익혔습니다.

②소수점까지 점수 매기기: 채점의 주관성을 배제하기 위해 정답자 수에 따라 0.33점 단위로 점수를 매겼습니다. (1명 정답 시 0.33, 2명 0.67, 3명 1점) 이를 통해 나의 현재 위치를 냉정하게 분석하여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사진 참고)



채점스터디 답안지 사진



상호 채점 후 댓글로 업로드

채점 스터디는 재수 시절 진행했습니다. 옆의 사진처럼 시험이 끝나자마자 문제를 사진 찍어 올리고, 교수님의 해설 강의가 끝난 후에 채점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명을 다 채점하는 것이 아니라 매주 돌아가며 한 명씩 채점해서 찍어 올리는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채점을 하는 데에는 약 10분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4) 오답 분석의 효율화**

모고 역시 문풀 시기와 마찬가지로 시간 효율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틀린 원인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 문풀 때 사용했던 오답 원인 유형별 색깔 스티커로 답안지에 표시하고 보완 설명을 적었습니다.

모든 분석은 학원 강의를 끝난 직후 그 자리에서 마무리했으며, 귀가하는 지하철 안에서 사진으로 찍은 답안지를 완벽히 암기하며 하루를 마칩니다. (사진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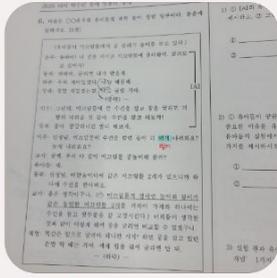
모고 1회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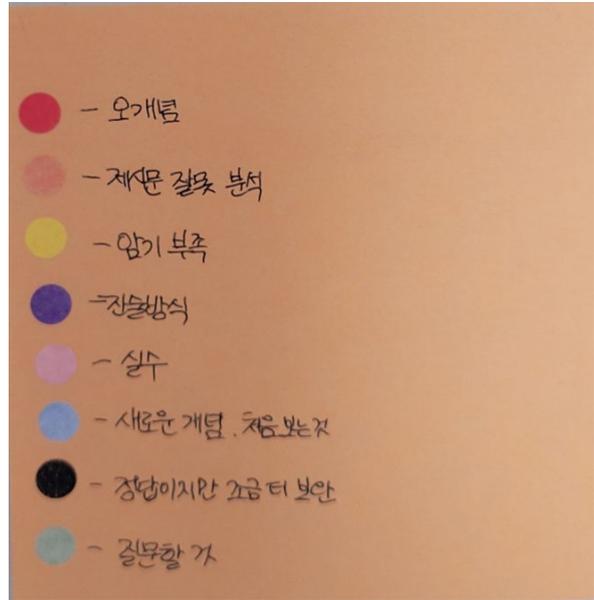
모고 2회  
10



모고 3회  
3



모고 4회  
4



이동 시 활용했던 오답노트 앨범

오답 스티커 표시 색깔



매일 늦게까지 남아 공부했던 흔적

## 4. 2차 준비 방법

### 1) 1차 합격 전 공부 방법

2차 준비는 반드시 1차가 끝난 후 바로 시작하세요! 1차 발표 전에는 마음이 심란하여 공부가 잘 안될 수 있지만, 그때 해놓는 공부가 1차 발표 이후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업실연 만능틀 만들기과 면접 기출문제 풀어보기만 해봐도 받은 갑니다!! 그리고 경기 지역이라면 시책 요약본 만들기도 같이 해두시길 추천합니다.

### (1) 2차 강의 수강

재수 때에는 사례운영반에 직접 참여해서 조원들과 함께 수업을 구상하여 직접 실연까지 해보았습니다. 사례운영반에 참여하는 것은 남들에게 내 수업이 보여지는 것이다 보니 많은 부담이 되었지만, 그때 연습하고 준비했던 것이 올해 2차 준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사례운영반에 참여하지는 않고 직강반을 수강하였는데, 사례운영반을 매년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하며 수업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 보완해야 할 점, 교수님의 피드백 등을 빠짐없이 노트에 적어 정리하였습니다. 교수님의 피드백 뿐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 수업에서 잘한 점, 부족한 점 등을 분석하여 바로바로 적었습니다. 또한 제본집에 있는 면접 문제와 수업실연 문제들을 직접 하루에 분량을 정해 조금씩이라도 풀어보고자 하였습니다.

### (2) 면접

#### ①시책 요약본 구술 스테디

저는 재수 시절 1차에서 떨어졌지만, 내년에도 반드시 경기를 지원하겠다는 각오로 당시 합격한 친구와 미리 시책 스테디를 진행하며 요약본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올해는 이 요약본을 100% 활용했습니다. 1차 합격 전부터 학원 친구와 매일 한 문제씩 요약본 내용을 묻고 답하는 구술 스테디를 진행했는데, 하루 한 문제라 부담이 없으면서도 2차 공부를 미리 체득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 ②경기 기출 면접 짝 스테디

1차 발표 전 마음이 심란하여 혼자서는 마음처럼 쉽게 공부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한 선생님과 함께 경기도 면접의 유형을 파악하기 위한 기출 스테디를 진행했습니다. 교수님 제본집에 수록된 2017~2025년도 경기 면접 기출문제를 활용해 짝 스테디 선생님과 공부했습니다. 페이스톡으로 접속해 동시에 문제를 구상한 뒤, 실제 시험처럼 시간을 재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경기도만의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습니다.

### (3) 수업실연

저는 수업실연 태도 면에서는 자신이 있었지만, 설계 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1차 발표 전부터 나만의 만능틀을 미리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발문들을 수없이 수정

하고 보완하며 통째로 외웠습니다. 특히 도입부의 주의집중 노래처럼 평가위원의 시선을 한눈에 사로잡을 수 있는 부분들을 매일 반복해서 연습했습니다. 합격후에는 정말 정신이 없고, 스터디 비중을 점차 늘려가야 하기에 만능틀은 미리 정리해서 외워두고, 합격 후에 스터디를 하며 개인공부로 수정과 보완을 거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2) 1차 합격 후 공부 방법

### 1) 면접 및 시책

저는 면접 만능틀은 만들지 않았습니다. 범위가 워낙 방대하기도 했지만, 틀에 갇히면 문제의 본질보다는 준비한 답변을 끼워 맞추게 될까 봐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만능틀에 갇히기보다 교육 방안 예시들을 몇 가지 정해두고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답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①기상 즉답 스터디: 매일 아침 6시, 30분간 짝 스터디로 즉답형 2문제씩 푸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제별로 날짜를 정해 전날 내용을 정리하고 예상 문제를 직접 만들어 실전처럼 연습했습니다.

②시책 스터디: 경기도는 면접에서 시책 관련 문제를 많이 물어보기에 시책 공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는 3명이서 스터디를 꾸려 경기도 교육청에 올라와있는 '경기유아교육 정책추진 기본계획'을 챕터별로 매일 예상 문제를 1개씩 만들어 밴드에 공유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그 문제에 대한 답변을 달아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정리한 답변들은 한글 파일로 모아 시험장까지 가져가 반복해서 보았는데, 덕분에 실제 시험에서 생태전환교육 등 예상했던 문제들이 대부분 나와 수월하게 답변할 수 있었습니다.

### 2) 수업실연

①개인 공부와 번개 스터디: 교수님이 주신 기출 및 연습문제는 철저히 개인 공부로 소화하며 15분 구상 연습을 반복했습니다. 정기적인 대면 스터디보다는 주 1~2회 정도 '번개 스터디'를 통해 감각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스터디를 할 때에는 기존의 문제를 활용하지 않고, 교사용 지도서의 의미 있는 활동을 찾아 제가 직접 문제로 만들어 사용하였습니다. 문제를 직접 만들다 보면 출제자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더욱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계역량 문제 역시 직접 만들었는데, 이는 경기 지역에서 출제되었던 수업 나눔 문제를 뒤집어서 내거나, 타 지역(대구)의 설계 역량 기출을 변형해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역량은 이번에 새로 바뀐 유형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에 5문제, 한 문장에 3문제, 1문제 등 다양한 유형으로 내고 대처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②피드백: 피드백은 스터디원 선생님들께 장점을 말하기보다는 보완점 위주로 해달라고 부탁드립니다.

렸고, 저 역시 보완점 위주로만 피드백을 해드렸습니다. 장점은 스스로도 잘 알고 있기에, 실력 향상을 위해서는 냉정한 조언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스터디를 할 때 항상 실연 영상을 촬영하였지만, 다시 볼 시간이 부족했기에 피드백 내용을 즉시 메모하여 바로 수정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썼습니다.

### 3) 시험 날

#### (1) 마인드셋하기

면접과 수업실연은 무엇보다 자신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수업실연과 면접을 보러 가기 일주일 전부터 '나는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와 상견례를 하러간다. 나는 상견례 프리패스 상이니까 어머님들께서 좋아하실 거다.'라고 생각하며 시험을 보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행가는 신나는 기분으로 시험장 숙소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니 실제 시험장을 들어갈 때까지도 전혀 떨지 않았고, 오히려 둘째 날 수업실연 때에는 너무 신나서 텐션이 더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면접 답안도 '내 답이 다 맞는 말이다.'라는 생각으로 전혀 면접관 눈치 보지 않고 내가 생각한 답을 눈을 똑바로 맞추며 논리적으로 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시험장에 들어가서 떨게 되면 자신이 준비한 것들을 다 발휘하지 못할 수 있으니 '내가 최고다' 라는 생각으로 기세로 밀고 나가세요!!

#### (2) 면접

저는 면접에서는 전달력을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답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안에 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연습할 때에는 서결론을 넣어서 말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5문제 모두 서론과 결론을 과감히 생략하고 곧바로 본론부터 답변했습니다. 또한 구상형 문제 답변 시에는 "구상형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사 역할과 역량을 각각 두 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와 같이 가짓수를 확실히 언급해 심사위원이 채점하기 편하시도록 했고, 최대한 문장을 짧게 구성하여 전달력 있는 답변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 (3) 수업실연

저는 수업실연에서는 제시된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체크하여 수업에 녹여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이에 수업 문제를 보자마자 유형과 조건, 설계역량 문제를 파악하여 이를 수업에 녹여내고자 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볼펜 색 제한 없이 사용이 가능하기에 흑색 볼펜으로 수업을 구상한 후 민트색 형광펜으로 활동 순서 제목을 체크하고, 분홍색 형광펜으로 조건에 체크하여 눈에 띄게 구상하였습니다. 실제 실연 중에는 직접 지은 동시를 읊을 때를 제외하고는 구상지를 전혀 보지 않고 즉석에서 문장을 만들어 수업을 이끌어갔습니다. 구상지에 모든 발문을 적기에는 20분이라는 시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종이를 보고 읽게 되면 수업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끊겨 어색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6.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진인사대천명(盡人事待天命)'

수험 생활 내내 제가 가장 많이 되뇌었던 말입니다.

이 시험은 노력만큼이나 운도 따라주어야 한하지만, 결국 그 운조차 온전한 나의 노력이 바탕이 되었을 때 비로소 선물처럼 찾아오는 것이라 믿었습니다.

중학생 시절부터 저는 오직 유치원 교사만을 꿈꿔왔습니다.

한 번 마음먹은 일은 끝을 보아야 하는 성격이라,  
때론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도 제가 선택한 이 길 하나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재수 시절, 일과 공부를 병행하며 몸과 마음이 깎여 나갈 때는  
이 길을 아예 포기할까 수없이 망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운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올바른 어른을 만나 한 명도 소외됨 없이  
자신의 고유한 색깔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  
이 간절한 사명감 하나가 저를 포기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3년 동안 가슴 깊이 품어온 그 오랜 꿈이 드디어 현실이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쥐여준 행운이 아니라, 오로지 나의 눈물과 노력으로 일구어낸 결과이기에  
이 합격이 더없이 소중한 뜻깊습니다.

이제 어엿한 공립 유치원 교사로서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무거운 짐을 진 채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계실 선생님들.  
그 외로움과 고단함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대한민국의 미래를 길러낸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자신을 믿고 포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안의 지혜가 빛을 발해  
반드시 아이들의 곁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숭고한 여정을, 제가 현장에서 미리 기다리며 온 마음 다해 응원하겠습니다.